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북권 무대에 오를 청년 예술인 모집

여러분의 재능·열정 '맘껏'

전북문화관광재단, 내달 11일까지
도내에서 활동중인 예술인 대상
연간 최대 5회 공연 1회당 210만원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20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북권' 무대에 오를 재능과 열정 있는 청년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연 장르는 아외 및 실내 장소에서 버스킹이 가능한 모든 장르(음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를 아우르며,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 받아 웹하드(www.webhard.co.kr)에 동영상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부터 만 34세(1985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출생)의 청년 예술인 1~5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다. 단, 5인 이상도 신청은 가능하나 5인 기준 210만 원(1회)을 최대 지원한다.

선발 방법은 서류 및 동영상을 바탕으로 1.5배수 내외(약 50팀)로 1차 선정하고, 2차 실연 동영상 및 화상 인터뷰 방식의 비대면 오디션 심의를 거쳐 최종 35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5월 27일 지역별 주관처 홈페이지를 통해 통시 발표된다.

한편 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이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북권'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약 2개월 늦게 공모가 시작했다.

지역문화진흥원은 지난 2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을 운영할 전국 10개 주관처 선정을 완료했으나, 참여 예술인들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20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북권' 무대에 오를 재능과 열정 있는 청년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 안전과 대국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청년예술인 공모 일정을 비롯해 모든 행사 일정을 전면 연기했다.

하지만 장기화 된 국가재난 위기 사태에 청년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침체를 우려해, 청춘마이크 청년예술인 모집 공고와 선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향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기간 내 사업 운영 시 지원 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전북권의 경우, 연간 최대 5회의 정규공연 지원 회차를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예술인들의 비대면 예술 활동에 필요한 실연 영상 촬영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원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과 전북지역 신청자

(지역 우대)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청춘마이크 전북권 사업'은 도내에서 활동 가능한 청년예술인을 선정해, 6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아외·실내 다중 밀집 지역 및 문화기반 시설장소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진아 팀장은 "청춘마이크 사업은 학력·경력·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열정과 재능만으로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만큼, 지역 내 청년예술인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전문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유네스코 유산 세계에 알린다

문화재청, 내년 홍보지원 사업 공모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을 대상으로 한 내년 홍보지원 사업 공모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세계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고 공동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부터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에 세계기록유산도 포함했다.

내년 예산 수립 일정에 맞춰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대상 사업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세계유산인 창덕궁, 종묘, 조선왕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14건의 세계유산과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석굴암·불국사(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창덕궁(1997년) ▲화성(1997년) ▲경주역사유적지

구(2000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역사마을: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 ▲한국의 서원(2019년) 등이다.

또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조선왕조 의궤(2007년)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18민주운동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국제보상운동기록물(2017년) ▲조선통신사기록물(2017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올해는 8개 광역시·도에서 7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35개 사업과 6개 광역시·도 7개 세계기록유산을 대상으로 한 2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뉴시스

관광공사, 분야별 유망 스타트업 30개사 모집

엑셀러레이팅 참여... 내달 24일까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관광분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 30개사를 다음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난날 관광 엑셀러레이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벤처스퀘어, 와이앤아처, 씨엔티테크 등 3개 엑셀러레이터의 주도로 진행된다. 이들 엑셀러레이터는 본연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10곳을 각각 선정하게 될 예정이다.

선발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컨설팅,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 우수 기업으로 선발되면 담당 엑셀러레이터로부터 최대 2억원의 직접투자도 받을 수 있다.

관광공사가 보유한 관광산업 관련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지식인프라 등을 활용한 관광 특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는 올해부터 기존 예비·초기 단계 창업 지원뿐 아니라 성장단계에 있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관광분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관광플러스팀스'와 '관광 선도기업 육성'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통해 관광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덕수 관광공사 관광기법지원실장은 "관광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공사와 민간 투자기관이 공동으로 국내 관광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코로나-19로 관광 산업 전반의 침체 상황에서 관광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관광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뽀로로·타요... '동화 캐릭터도 오디오북으로 만나세요'

스토리텔, 280여권 내달 중 순차 공개

뽀로로, 타요, 띠띠뽀 등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 오디오북(소리책)이 출시됐다. 오디오북 플랫폼 스토리텔은 국내 인기 영유아 애니메이션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띠띠뽀 띠띠뽀' 등의 오디오북 280여권을 다음달 중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인기 캐릭터의 목소리로 직접 동화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로로 전래동화' 등 아이코너스가 서비스 중인 인기 영상 스토리 시리즈를 오디오 동화로 재

장점이다.

오디오 동화는 '뽀로로의 피방', '선생님이 된 타요' 등 이미 출간된 동화책을 오디오북으로 구성한 28편과 '뽀

구상한 8편 등이다.

이외에도 '뽀로로의 동물사전 호랑이'와 '크롱은 못 말려, 밥 먹기 싫어' 등 자연과학, 감정, 생활습관 등 카테고리에 맞춰 제작한 오디오북 213편이 있다. 이중 5종의 타요 오디오북은 영어로 제작됐다.

박세령 스토리텔 한국지사장은 "소리로 듣는 동화 오디오북 특성상 아이들은 뽀로로와 타요, 띠띠뽀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어 동화 속 다양한 지식과 올바른 메시지를 더욱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다"며 "자녀에게 올바른 독서 경험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관광공사, 8월 31일까지 품질인증업소 모집... 3년동안 인증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도 한국관광 품질인증소를 선정하기 위한 인증 신청 접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한 관광업소의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점(사후면세점) 등 4개 업종에서 약 480개의 품질인증업소가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인증업소는 관광공사로부터 서비스 모니터링 및 교육, 소방·위생진단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관측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준관리 대비 최대 1.25%의 우대금리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인증 여부는 서류평가, 1·2차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현장평가시 관광·인증분야 전문가 2명이 신청업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누리집(www.koreaquality.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